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경향 및 원인

홍 백 의*, 김 혜 연**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성별에 따라 빈곤 지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8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의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전체로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빈곤의 여성화를 논의함에 있어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종단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8개년에 걸친 종단적 분석을 하여 빈곤의 여성화 경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98년 이래 빈곤의 여성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형태에 따른 성별 빈곤율 차이가 정규직이나 자영업처럼 근로하는 직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 노동시장 변수들이 빈곤의 여성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빈곤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결혼형태는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통제된 이후에는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빈곤에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단기적으로는 교육수준과 노동형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구원 수나 가구 내 취업자 수와 같은 가족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의 차별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형태를 제공하여야 함을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결혼형태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신(新)빈곤층의 등장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절대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에 3.1%에서 2003년 10.4%로 무려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상대 빈곤율 또한 같은 기간에 8.7%에서 15.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김미곤 외, 2006). 이처럼 빈곤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에 국한된 문제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상당수가 위협에 노출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 빈곤의 심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 등의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처럼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저임금과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빈곤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석재은(2004)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1996년에 상대 빈곤율이 6.74%에서 2000년에 11.04%로 증가한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28.5%에서 34.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절대적인 빈곤율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의 절대적 수준도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빈곤율 차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주로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남성 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이 시도되었다(Sainsbury, 1999). 이들에 의하면 남성 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국가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성별 역할 분담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여성은 가족구조 내에서 보호노동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비록 여성의 경제활동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남성 배우자의 생계 보조수단 정도로만 간주되고 여성의 저임금을 크게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다(박영란 외, 2001). 비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 내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것까지 담당해야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주 부양자인 남성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직, 질병 혹은 이혼 등으로 생계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여성의 경제적 수준은 크게 위협받게 되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빈곤 문제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가족형태, 가구규모 및 복지제도 등을 포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제적 상태는 노동시장의 조건이나 개인의 인적자본, 즉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반면에 여성의 경제적 상태는 결혼 상태나 가족구조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은 기존의 노동시장 중심적 복지국가 유형화론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유형화론을 주장한 Esping-Andersen(1990)의 경우 개인의 계급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장경제 혹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개인의 사회적 권리의 정도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혹은 노동시장에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상당수 여성들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거나 혹은 미취업자로서만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Sainsbury, 1996; 1999; Orloff, 1993).

한편, 빈곤화의 정도에 있어 성별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Diana Pearce(1976)의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녀는 빈곤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이상으로 매우 높고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임을 밝힘으로써

실증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빈곤 위험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이혜경, 1998; 김영란, 1997; 1999; 남정림, 1991; 유정원, 2001; 박영란, 2003; 여지영, 2002; 박재규, 2003; 석재은, 2004).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빈곤 위험의 차이를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위험 차이로 살펴보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빈곤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이혜경, 1998; 여지영, 2002; 석재은, 2004). 또한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어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김영란, 1997; 1999). 또한 빈곤의 여성화 개념은 시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적 추이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횡단 자료만을 분석함으로써 종단적 연구를 통한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빈곤의 여성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여성가구주와 남성 가구주 가구간의 경제적 수준 및 빈곤 위험을 비교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 차이 및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빈곤 지위를 결정하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빈곤 여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 빈곤율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횡단 분석과 종단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횡단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성별 빈곤율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며 종단분석은 빈곤의 여성화가 시간적 추이에 따라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빈곤 지위를 결정하는 데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성별 빈곤율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 정태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개인을 분석단위로 빈곤의 여성화 실태 및 원인을 동태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여성빈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Diana Pearce(1976)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개념을 도입한 이후 빈곤 현상에 성(gender)이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빈곤의 여성화 경향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고자 시도하였다(Peterson, 1987; MacLanahan, 1989; Northrop, 1990, Casper, Lynne M. et al., 1994; Pressman, 1989; 2003). 먼저,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는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견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빈곤의 여성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일부 기간동안 빈곤의 여성화가 역전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

다(Pressman, 1989; Northrop, 1990). 다음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로 대체로 빈곤의 여성화는 가족구조, 노동시장, 복지 프로그램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족구조 요인으로는 이혼율 및 미혼모 증가, 여성의 자녀 양육책임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노동시장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 내 성차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프로그램의 개혁 등이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1987; MacLanahan, 1989; Northrop, 1990, Casper, Lynne M. et al., 1994; Pressman, 1989; 2003).

가족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인 MacLanahan(1989)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의 여성화에 여성의 결혼상태, 아동양육 여부 및 이전소득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195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친 가족구조 관련 요인들을 중단분석 하였는데, 비노인 집단에서 아동 양육여부가 여성과 남성의 빈곤차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집단에서는 결혼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sper et al.(1994)은 가족구조 요인 및 고용형태가 빈곤의 여성화에 미친 영향을 국가별로 분석하여, 국가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사회정책의 차이에 따라 영향요인이 달라짐을 실증분석 하였다(Casper et al., 1994).

다음으로 Smith(1984)와 Northrop(1990)은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가 빈곤의 여성화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Smith(1984)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켰으나, 서비스 업종의 특성인 저임금 및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Northrop(1990)은 Smith(1984)의 논의를 발전시켜, 남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과 여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성장 정도가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국내에서는 '빈곤의 여성화(poverty of feminization)'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해경(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빈곤의 여성화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김영란, 1997; 1999; 남정림, 1991; 박영란, 2003)이며, 둘째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실증 분석한 연구(유정원, 2001; 여지영, 2002; 박재규, 2003; 석재은, 2005)들이다. 여성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은 주로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부적 역할 및 사회복지정책의 미비 등이 빈곤의 여성화가 발생하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김영란, 1997). 이러한 연구들은 Peterson(1987) 등 서구학자들의 여성빈곤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한국의 상황에 접목시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내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Casper et al.(1994)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빈곤의 여성화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정책적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빈곤의 여성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서구와 동일한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주로 한국 노동패널자료,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 및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유정원, 2001; 여지영, 2002; 박재규, 2003; 석재은, 2004). 이들 연구에 의하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관찰되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성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 차이에 있어 인적자본변수, 가족특성변수 및 노동시장 변수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여지영, 2002). 이들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빈곤차이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여성 빈곤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혔다. 그러나 빈곤의 여성화 개념은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반해 이들 연구들은 정태적 분석에 그친 한계를 가지며, 종단분석을 시도한 경우에도 기술통계적(descriptive statistics) 설명에 그친 한계가 있다(유정원, 2001; 석재은, 2004). 또한, 분석모형에서 빈곤의 여성화 개념이 남성의 빈곤을 고려한 상대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가구주라는 비교대상을 결여하고 있거나 분석단위를 여성과 남성 개인으로 하지 않고 여성가구주와 남성 가구주 가구로 하여 진정한 의미의 ‘여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박재규,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빈곤의 여성화’ 개념을 남성과의 상대적인 ‘비교’ 그리고 ‘과정(process)’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성별 상대적 빈곤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의 변화과정과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종단적 분석을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에 걸친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한국 노동패널 자료는 15세 이상 개인 및 가구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특성,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8개년 동안 누적된 조사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가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횡단 및 종단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으며,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가구 균등화지수로 조정된 가구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은 빈곤한 것으로,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 속한 개인은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가구 내 자원이 가구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가정(assumption)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가구 내자원이 여성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정도를 과소추정하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Daly, 2000; 여지영, 2002 재인용). 그러나 여성가구주와 남성 가구주 가구를 단위로 하여 빈곤의 여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빈곤 현실에 대해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성가구주 가구에 속해 있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구 내 자원의 균등한 배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분석단위로 연구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 차이를 설명하는 데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빈곤율의 성별 차이는 개인을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Citro & Michael, 1995; 구인회, 2001 재인용)¹⁾.

한편, 빈곤을 개인단위로 추정하면 여성 빈곤율에 여성 가구주 뿐 아니라 여성 가구원의 빈곤율이 포함되게 되는데, 여성 가구원의 빈곤은 남성 가구원의 빈곤여부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 가구원의 빈곤을 성적 특성에 의한 빈곤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석재은, 2004). 그러나, 여성 빈곤을 여성가구주의 빈곤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오히려 남성가장=생계부양자라는 공식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여성가구주 여부와 관계 없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실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여성 가구원인 경우가 많은 것들을 감안할 때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가구 단위 빈곤율 측정이 가지는 한계와 대상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여성의 빈곤문제를 여성가구주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성가구주 가구 뿐 아니라 남성가구주 가구 내의 여성 가구원을 여성빈곤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여성 빈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변수의 정의

가. 빈곤의 측정

빈곤 지위를 결정하는 데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절대적 여성 빈곤의 규모를 추정하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를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으므로 상대적인 빈곤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는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위 가구소득의 40%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소득의 조정을 위해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가구원수에 대한 조정치는 Atkinson et al.(1995) 및 Burniaux et al.(1998), 그리고 OECD 국가연구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값으로 비교적

1) 미국의 경우 가구단위로 빈곤율이 측정될 때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비노인가구의 빈곤률보다 높지만 개인단위로 빈곤율을 측정할 때에는 노인의 빈곤율이 비노인의 빈곤율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 노인은 소규모 가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지만 비노인 빈곤층의 경우는 대규모 가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구인회, 2001). 이는 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의 빈곤을 가구단위로 측정할 때,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여성 개인의 빈곤율은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여성의 빈곤율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은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하며, 이와 함께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예를 들어 가구주 여부 등으로 나누어 세분화된 빈곤율이 함께 검토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여지영, 2002).

나.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acLanahan(1989)이 빈곤여성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빈곤인구의 구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인구변화를 측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사용한 척도는 다음 네 가지이다: 1) 빈곤남성 대비 빈곤여성의 수(ratio of the number of poor women to poor men), 2) 여성과 3) 남성의 빈곤율(poverty ratio of women and men), 4)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ratio of women's poverty rate to men's poverty rate) (MacLanahan, 1989).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지표로 빈곤의 여성화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빈곤의 여성화 원인을 규명할 때는 네 번째 지표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다.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인적자본특성, 가족구조특성 및 노동형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인적자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투입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가변수(dummy coding)하였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은 연속변수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구조 특성으로는 결혼상태, 6세 이하의 아동의 수, 가구원의 수, 가구 내 취업자 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결혼상태를 기혼유배우자와 독신으로 이분화 하였으며 독신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그 외 6세 이하 아동의 수, 가구원의 수 및 가구 내 취업자 수는 연속변수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형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및 미취업자로 구분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미취업자를 기준 집단으로 하여 가변수(dummy coding)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8년도에 걸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개별 독립변수에 따른 분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매년도 별로 남성의 빈곤율, 여성의 빈곤율 그리고 남성 대비 여성의 빈곤율을 연령집단과 노동형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빈곤 지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전체와 성별로 구분하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회귀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먼저, 횡단 분석에서 성별 빈곤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2005년 현재 여성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후 그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개별 독립변수가 남성의 평균과 동일할 경우에 기대되는 빈곤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즉, 여성이 개별 독립변수에서 남성과 동일한 값을 가질 경우에 기대되는 여성의 빈곤율을 구하여 이를 남성의 관찰된 빈곤율에 대한 비를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종단 분석에서 개별 독립변수가 빈곤의 여성화, 즉 성별 빈곤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법은 위의 횡단분석에서와 동일하나 변화되는 여성의 개별 독립변수를 남성의 평균값 대신에 1998년도 여성의 평균값을 대입하여 기대되는 빈곤율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남성의 관찰된 빈곤율과 비교하여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200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5,271명, 여자 5,753명 총 11,024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우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남성이 11.69%, 여성이 16.67%로 성별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반면 남성은 고등학교와 전문대 이상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과 기혼유배우자인 경우에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기혼무배우자의 경우는 남성이 5.62%, 여성이 17.45%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6세 이하 자녀수는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형태를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매우 높았고,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여성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은 미취업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가구내 성별분업에 따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고, 이들이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가구원 수는 남성이 3.52명, 여성이 3.51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가구내 취업자수 또한 남성이 2.70명, 여성이 2.68명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여성은 65세 이상 연령대의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결혼상태에서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기혼무배우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노동형태에서 미취업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25-64세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여성보다 높았고, 결혼상태는 미혼이거나 기혼유배우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노동형태에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005년)

(단위: %)

구분		전체(N=11024)	남자(N=5271)	여자(N=5753)
연령	18-24세	10.05	9.41	10.60
	25-44세	44.55	46.59	42.69
	45-64세	31.12	32.31	30.04
	65세 이상	14.28	11.69	16.67
교육수준	무학	5.60	1.82	9.06
	초등학교	12.53	8.73	16.02
	중학교	12.05	11.36	12.68
	고등학교	34.66	36.60	32.88
	전문대 이상	35.17	41.5	29.34
결혼상태	미혼	22.38	26.09	18.98
	기혼유배우	65.83	68.30	63.57
	기혼무배우(별거,이혼,사별)	11.79	5.62	17.45
6세이하 자녀수	0명	82.63	82.3	82.93
	1명	12.24	12.52	11.99
	2명	4.99	5.05	4.94
	3명	0.14	0.13	0.14
노동형태	상용직	28.74	37.98	20.27
	임시일용직	8.31	9.32	7.39
	자영자	19.28	23.71	15.21
	미취업자	43.68	28.99	57.14

2. 빈곤의 여성화 경향

빈곤의 여성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8~2005년도 8개년도 동안 여성 빈곤율, 남성 빈곤율, 성별 빈곤차이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측정방법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성빈곤율과 남성 빈곤율은 여성인구 중에서 빈곤여성의 비율, 남성인구 중에서 빈곤남성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빈곤지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별 빈곤율의 비(ratio)를 구해야만 한다. 성별 빈곤율 차이(sex/poverty ratio)는 여성 빈곤율 대비 남성 빈곤율로 계산되며, 성별 빈곤율 차이가 1보다 크면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한 것으로, 성별 빈곤율 차이가 1보다 작으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전체 연령집단에서 연도별로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여성 빈곤율은 16.81%, 남성 빈곤율은 15.77%였으나, 2005년 여성 빈곤율은 14.72%, 남성 빈곤율은 11.67%로 여성과 남성 모두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빈곤차이는 1998년에 1.07이었다가 1999년 1.13, 2000년 1.19, 2001년 1.23, 2000년 1.27로 점차 증가하였으

며, 2004년 1.23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5년 1.26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과 남성 인구 중 빈곤한 사람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인 빈곤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빈곤차이를 연령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18~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빈곤차이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1998년도에서 2002년까지는 성별 빈곤차이가 0.74에서 0.95까지 연도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에는 빈곤율 차이가 1.05로 성별 빈곤차이가 역전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 1.14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0.93으로 감소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빈곤차이의 불분명한 패턴은 25~44세 연령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5~44세 연령층의 경우 1998년, 2001년과 2002년의 경우는 성별 빈곤차이는 1보다 적어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과 2003년에는 성별 빈곤차이가 1보다 크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젊은 연령대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빈곤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취업하는 반면, 여성은 일찍 취업하거나 결혼으로 인해 남성 가구주의 가구소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45~64세 연령대에서는 젊은 연령대와는 다르게 성별 빈곤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조사기간 동안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 구체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1.26에서 2001년 1.50으로 지속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빈곤율이 증가하여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 빈곤율의 1.5배까지 상승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성별 빈곤차이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빈곤차이는 2005년에 1.31 정도로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끝으로,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998년 여성의 빈곤율이 38.09%였으며, 2004년에는 45.55%로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빈곤율은 점차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39.94%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연령대의 절대적 빈곤율은 매우 높은 반면, 성별 상대적 빈곤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1998년에 1.05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2000년에는 0.99로 빈곤의 여성화가 오히려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다시 높게 나타나 이후 점차로 성별 빈곤차이가 증가되어 노인 집단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연령대별 성별 빈곤차이는 장년층(45~64세)과 노령층(65세 이상)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층인 18~24세, 25세~44세 연령대에서는 성별 빈곤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체 연령 집단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45-64세 중장년층 집단과 6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의 나타난 빈곤의 여성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령대별 성별 빈곤율 및 성별 빈곤차이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여성빈곤율(%)	16.81	15.14	14.25	16.75	14.84	15.88	16.32	14.72
남성빈곤율(%)	15.77	13.38	12.57	14.03	12.11	12.54	13.23	11.67
성별 빈곤차이	1.07	1.13	1.13	1.19	1.23	1.27	1.23	1.26
18-24세								
여성빈곤율(%)	12.18	10.95	8.28	12.80	7.97	9.99	9.63	9.18
남성빈곤율(%)	16.39	13.53	12.52	13.64	8.37	9.52	8.42	9.88
성별 빈곤차이	0.74	0.81	0.66	0.94	0.95	1.05	1.14	0.93
25-44세								
여성빈곤율(%)	12.35	10.28	9.03	9.62	7.14	8.88	8.97	7.82
남성빈곤율(%)	12.85	10.39	8.85	10.22	7.69	8.69	9.85	8.39
성별 빈곤차이	0.96	0.99	1.02	0.94	0.93	1.02	0.91	0.93
45세-64세								
여성빈곤율(%)	18.89	16.97	16.45	18.60	15.46	14.67	14.34	12.50
남성빈곤율(%)	14.98	12.78	11.68	12.42	10.72	10.16	10.90	9.51
성별 빈곤차이	1.26	1.33	1.41	1.50	1.44	1.44	1.32	1.31
65세이상								
여성빈곤율(%)	38.09	34.42	34.18	39.92	42.28	43.58	45.55	39.94
남성빈곤율(%)	36.25	32.33	34.38	38.14	40.73	39.75	39.11	32.14
성별 빈곤차이	1.05	1.06	0.99	1.05	1.04	1.10	1.16	1.24

아래 <표 3>은 노동형태에 따른 성별 빈곤율과 성별 빈곤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형태에 따른 빈곤율은, 1998년 자영업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미취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그리고 상용직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년의 여성 빈곤율을 살펴보면 미취업의 경우 빈곤율이 18.01%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15.76%, 자영업자 12.91%, 상용직 6.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미취업인 경우 22.45%로 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16.50%, 자영업자 8.64%, 상용직 4.15%의 순으로 여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모든 노동형태에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미취업의 경우는 남성의 빈곤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미취업이 대부분 실직과 같은 비자발적 미취업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활동 종사 등과 같은 자발적인 미취업이 상당부분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노동형태에 따라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성별 절대적 빈곤율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별 절대적 빈곤율에서는 미취업>임시·일용직>자영업자>상용직의 순으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의 상대적 차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자영업자>임시·일용직>미취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년을 기준으로 성별 상대적 빈곤차이를 보면 상용직의 경우 1.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1.49, 임시·일용직 0.96, 미취업 0.80 순으로 나타나 노동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성별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연도에 따라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순서가 일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상용직에서 성별 빈곤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상용

직에서의 성별 빈곤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빈곤 차이 뿐 아니라 동일한 종사상 지위에서도, 특히 정규직 내에서의 여성과 남성간의 소득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빈곤차이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형태에 따른 추이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가 미취업 혹은 임시·일용직 보다 자영업 혹은 상용직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3> 노동형태에 따른 성별 빈곤율 및 성별 빈곤차이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여성빈곤율(%)	16.81	15.14	14.25	16.75	14.84	15.88	16.32	14.72
남성빈곤율(%)	15.77	13.38	12.57	14.03	12.11	12.54	13.23	11.67
성별 빈곤차이	1.07	1.13	1.13	1.19	1.23	1.27	1.23	1.26
상용직								
여성빈곤율(%)	8.15	6.87	6.17	8.00	6.62	7.21	7.05	6.43
남성빈곤율(%)	4.82	4.47	4.57	6.24	3.03	4.42	5.21	4.15
성별 빈곤차이	1.69	1.54	1.35	1.28	2.18	1.63	1.35	1.55
임시일용직								
여성빈곤율(%)	15.00	20.31	17.52	17.55	16.63	17.02	16.96	15.76
남성빈곤율(%)	12.22	18.06	13.32	15.01	11.76	11.16	15.24	16.50
성별 빈곤차이	1.23	1.12	1.32	1.17	1.41	1.53	1.11	0.96
자영자								
여성빈곤율(%)	16.14	14.66	13.25	15.66	12.19	13.09	13.88	12.91
남성빈곤율(%)	13.39	11.78	10.95	13.70	10.49	10.22	10.76	8.64
성별 빈곤차이	1.21	1.24	1.21	1.14	1.16	1.28	1.29	1.49
미취업								
여성빈곤율(%)	19.55	16.98	16.69	20.02	18.41	19.81	20.28	18.01
남성빈곤율(%)	29.07	22.89	22.87	23.44	25.22	25.37	25.15	22.45
성별 빈곤차이	0.67	0.74	0.73	0.85	0.73	0.78	0.81	0.80

3. 빈곤 결정 요인

전체 연구대상자의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별에 따른 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자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4>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빈곤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빈곤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가능성과 부정적 관계를 갖

는 변수로는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수 등이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상태에 따른 빈곤가능성을 살펴보면 독신에 비해 부부의 경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약 29%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별로도 미취업자에 비해 정규직,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에는 미취업자에 비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72%, 임시·일용직의 경우 24%,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순으로 미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 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성별 빈곤가능성을 살펴보면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약 26% 정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펴본 앞의 기술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로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여성이 가진 다른 요인적 특성들, 예를 들어 고용형태나 결혼 상태 등에 의한 영향이며,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는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로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빈곤결정요인

변수명	전 체			남 성			여 성		
	β	Wald χ^2	Exp(β)	β	Wald χ^2	Exp(β)	β	Wald χ^2	Exp(β)
여 성	-0.31	20.64***	0.74						
연 령	0.01	13.36***	1.01	0.01	3.04	1.01	0.01	3.86*	1.01
교육수준	-0.29	100.4***	0.75	-0.27	48.90***	0.76	-0.31	51.5***	0.74
아동수	-0.02	0.05	0.98	0.18	2.33	1.20	-0.11	0.98	0.90
가구규모	-0.22	30.42***	0.80	-0.18	8.17**	0.84	-0.23	19.24***	0.79
취업자수	-0.51	97.61***	0.60	-0.50	40.98***	0.61	-0.56	64.93***	0.57
부 부	-0.34	24.54***	0.71	-0.10	0.60	0.91	-0.41	21.25***	0.66
정규직	-1.26	160.6***	0.28	-1.86	165.4***	0.16	-0.76	27.93***	0.47
일용직	-0.28	6.61*	0.76	-0.62	17.07***	0.54	-0.08	0.23	0.93
자영업	-0.75	74.16***	0.47	-1.24	92.40***	0.29	-0.43	12.66***	0.65
절 편	1.77	42.68***	5.90	1.76	21.98***	5.84	1.74	19.87***	5.69
	LR=1519.67*** d.f.=10 n=11,019			LR=632.05*** d.f.=9 n=5,271			LR=923.75*** d.f.=9 n=5,748		

* p<.05; ** p<.01; *** p<.001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의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표 4>의 세 번째 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과 결혼상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와 동일하였다. 다만, 남성의 빈곤 여부에 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혼상

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독신자와 부부간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상태가 그들의 경제적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형태와 관련된 가구규모나 가구 내 취업자 수는 빈곤가능성과 부적 관계를 가져 가구규모가 크거나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대상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의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표 4>의 네 번째 열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성의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연령이 빈곤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기 때문에 노령기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많아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노후의 경제적 상태가 크게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상태가 빈곤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적 상태는 상당부분 남성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는 결혼 상태가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독신에 비해 부부의 경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무려 34%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여성의 경우는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간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취업하는 임시·일용직이 남성들이 취업하는 형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제적 보상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미취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교육수준, 가구규모, 가족 내 취업자 수 그리고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및 자영업자 여부 등은 남성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성별 빈곤율 차이의 원인

성별 빈곤율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횡단 분석으로 2005년을 현재 성별 빈곤율 차이에 개별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는 종단 분석으로 2005년 성별 빈곤율 차이에 1998년의 독립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정도로 파악하였다. 먼저, 횡단분석에서 성별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을 산출하고 남성 대비 여성 빈곤율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독립변수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 추정되는 여성 빈곤율을 산출하고 이를 남성의 빈곤율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여성의 빈곤여부에 개별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로지스틱 회귀계수와 남성의 개별 독립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변화 시 기대되는 여성의 빈곤율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남성 대비 여성의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종단 분석의 경우 분석방법은 횡단분석과 동일하나 1998년도 여성의 독립변수 평균을 이

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먼저, 횡단분석을 위해 2005년 현재 여성과 남성의 독립변수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연령, 교육수준, 유배우자 그리고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및 자영자 비중 등에서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평균 연령이 약 1.4세 정도 높았으며, 교육수준과 유배우자 비중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형태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약 58%가 미취업 상태이나 남성의 경우는 29%만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의 변수들, 즉 6세 이하 자녀의 수, 가구원 수, 가구 내 취업자 수 등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연도별 여성과 남성의 독립변수 평균

변수명	2005년 여성	2005년 남성	1998년 여성
연령(세)	45.01	43.63	41.46
교육수준	4.77	5.41	4.59
6세이하 자녀수(명)	0.22	0.23	0.30
가구원수(명)	3.519	3.523	3.94
취업가구원수(명)	2.687	2.705	2.99
유배우자(비율)	0.64	0.68	0.64
고용형태(비율)			
정규직	0.20	0.38	0.17
임사·일용직	0.07	0.09	0.06
자영업	0.15	0.24	0.15

다음으로, 종단분석을 위해 1998년 여성의 상황과 2005년 여성의 상황을 비교해보자. 먼저, 교육수준을 보면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가구구성과 관련된 6세 이하 자녀수, 가구원 수 및 가구 내 취업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용형태를 보면 여성의 정규직 비중과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조금 늘기는 하였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어떤 요인이 성별 빈곤율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횡단분석에 따른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 정도는 <표 6>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수준으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여성의 빈곤율은 14.7%에서 11.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남성대비 여성 빈곤율도 1.26에서 0.97로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 이외에 노동형태도 성별 빈곤율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규직의 비중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만약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정규직 비중을 갖게 된다면 여성의 빈곤율이 14.7%에서 12.9%로 감소될 것이며 이로 인해 남성 대비 여성 빈곤율도 1.26에서 1.11로 0.15포인트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리고 남성과 여성의 가구원 수 및 취업가구원 수는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수들이 성별 빈곤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큰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방향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연령이나 6세 이하 자녀수 그리고 유배우자 비율 및 임시·일용직 비율, 자영업자 비율 등이 모두 성별 빈곤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교육수준이나 정규직 비율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6> 성별 빈곤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변 수 명	2005년 남성 평균 투입 시 추정 빈곤율			1998년 여성 평균 투입 시 추정 빈곤율		
	추정빈곤율	남성 대비 여성빈곤율	차이	추정빈곤율	남성 대비 여성 빈곤율	차이
연령	0.147	1.26		0.147	1.26	
교육수준	0.141	1.21	0.05	0.139	1.19	0.07
6세 이하 자녀수	0.113	0.97	0.29	0.138	1.18	0.08
가구원수	0.146	1.26	0.01	0.146	1.25	0.01
취업가구원수	0.134	1.15	0.11	0.124	1.07	0.20
유배우자	0.177	1.51	-0.25	0.111	0.95	0.31
노동형태	0.144	1.23	0.03	0.145	1.25	0.01
정규직	0.126	1.08	0.18	0.145	1.24	0.02
임시·일용직	0.129	1.11	0.15	0.145	1.24	0.02
자영업	0.147	1.26	0.00	0.147	1.26	0.00
	0.150	1.28	-0.02	0.147	1.26	0.00

다음으로 중단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의 시간적 변화가 성별 빈곤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표 6>의 세 번째 열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변수들 보다도 가구 형태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취업가구원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1998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여성의 추정 빈곤율이 14.7%에서 12.4%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취업가구원수가 1998년 수준에 머물렀을 경우를 가정하면 여성의 빈곤율이 14.7%에서 11.1%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횡단 분석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교육수준이나 노동형태에서 정규직 비중 등은 장기적인 중단분석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단기간에 걸친 횡단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의 성별 빈곤율 차이는 주로 교육수준이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장기적인 중단분석에 따르면 성별 빈곤율 차이의 원인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구원 수의 변화, 취업가구원수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 경향의 실태, 빈곤 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빈곤의 여성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1998년 이후 점차로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에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는 성별 빈곤율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여성화 경향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과 남성의 절대적 빈곤율 차이는 중장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되다가 최근에 들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는 절대적 빈곤율이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노동형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과 남성의 절대적 빈곤율을 노동형태별로 비교해 본 결과 미취업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상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이와 반대로 상용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그리고 미취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형태별로 시간적 추이에 따른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빈곤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 전체의 빈곤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성별은 빈곤 지위 여부에 영향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빈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교육수준, 가구규모, 취업자 수, 결혼형태, 노동형태 변수들이 모두 빈곤 지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별로 나누어 빈곤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는 결혼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결혼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성의 미취업 집단은 남성과 달리 자발적 미취업자와 비자발적 미취업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교육수준, 가구규모, 가구 내 취업자 수, 그리고 노동형태 변수들은 모두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횡단 분석에서 나타나는 성별 빈곤율 차이는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과 열악한 노동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장기적인 종단분석 결과에 따르면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원 수 및 취업가구원 수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기적 횡

단분석에서 나타난 교육수준이나 노동형태에서 성별 차이는 그 영향 정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 절대적 빈곤율 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노령층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노령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이후 기초노령연금이 법제화되면 경로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성별 빈곤율 차이가 중장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또한 노동형태 변수가 모두 상대적 빈곤율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욱이 빈곤 여부의 결정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성이 오히려 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성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가족구조나 결혼형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결혼 형태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일정정도 분리시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근로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보장 제도의 도입 및 여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수급권이 아닌 개별적 수급권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기존 제도 내용을 개혁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구인화. 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미곤·양시현·최현수. 2006.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빈곤과 불평등 실태 및 정책대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31.
- _____. 1999.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33.
- 남정림. 1991.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 『여성연구』 10.
- 박영란. 2003. 「빈곤의 여성화: 신빈곤 시대의 여성과 탈빈곤 정책의 뉴패러다임」. 『아세아연구』 47.
- 박영란·황정임·김진경. 2001.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재규. 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3.
-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
- 여지영. 2002.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정원. 2000. 「한국 여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제 4,5,6차 대우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1998. 「빈곤의 여성화: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서울: UNDP 한국대표부.
- Casper, Lynne M. et al.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 MacLanahan, Sara S; Sorensen, Annemette; Watson, Dorothy. 1989. "Sex Differences in Poverty, 1950-1980". *Signs* 15.
- Northrop, Emily M. 1990.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Issues* 24.
- Orloff,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 Pea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 Peterson, J. 1987.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s Issues* 21.
- Pressman, S., Peterson, J. 1989. "Comment on Peterson's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s Issues 23.

Pressman, S. 2003. "Feminist Explanation fo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s Issues 37.*

Sainsbury, D.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insbury.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s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Smith. J. 1986. "The Paradox of Women's Poverty: Wage-earning Women and Economic Transformation". *Women and Poverty*, eds., Clare C. Novak and Myra H. Stober, Chicago Press.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원인’에 대한 토론문

최 은 영*

- 8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여성화 분포뿐만 아니라 경향을 살펴본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연구임.
- 우선, 8개년도 자료를 활용한 만큼 분석대상 sample에 대한 좀 더 명료한 설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1998년과 2005년 사이에 attrition으로 빠져나간 케이스가 몇 개나 있는지,
 - 새로 패널 조사에 포함된 케이스는 몇 개나 되는지,
 -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거나, 종사상 지위간의 넘나들을 경험한 케이스는 얼마나 되는지,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동시장 요인 중 종사상 지위만이 고려되고 있는데, 직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2005년 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는데(표 1), 이는 너무 단순함. 종단분석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종단분석의 특성이 보다 부각되기 위해서는 코호트별 분석이나, 종사상 지위 변화패턴별 분석 등 좀 더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상용직에 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대상/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자로 이동한 대상/ 미취업자에서 취업한 대상 등은 빈곤위험이 현격히 다를 것임.
- 중요한 종속변수인 가구소득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인지? 그렇다면, 가구단위 밖에서 주어지는 소득을 가구내의 특성으로 해석하려했다는 측면에서 오류가 아닌지?
 - 예를 들어 98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딸과 동거하고 있던 미취업 어머니가 2004년에 딸을 출가시킨 경우, 어머니의 결혼상태와 교육수준 및 종사상 지위는 변화가 없고, 연령은 높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가구소득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연령효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표 2의 연령별 효과를 설명하면서, 18~24세 젊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이유를 여성보다 늦게 취업하기 때문으로 설명함. 변수 조작화에서 동거하는 부모 소득의 영향은 배제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읽힘. 그렇다면 자료를 정확히 반영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가구단위 특성을 개인단위 특성으로 전환시켜 해석하고 있음.

* 충북대

- 표 3을 해석하면서, 미취업의 경우에 남성 빈곤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비자발적 미취업과 자발적 미취업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고 있음. ①미취업의 자발성 여부는 가구의 빈곤을 해석하는 정확한 근거가 되기 힘들. 근로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 이기 때문. ②이렇게 개인단위의 특성으로 환원하여 해석하기 보다, 여성이 가사종사자일 경우 primary earner가 가구 내에 존재할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근본적으로 표 2나 표 3에서는 주요 변수별로 구분했을 때 성별 빈곤차이의 경향을 해석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다른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됨.
- 빈곤결정 요인을 분석한 표 4에서 남성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임. gender의 interaction effect를 추가로 살펴보는 등 추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종단분석에서 성별 빈곤율 차이는 가족구조의 변화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①변화의 패턴을 쫓아가지 않고 전체 sample의 총량을 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②개인의 변화 패턴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5에서도 종사상 지위의 비율이 불변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고, 설명력을 갖기 어려웠던 것임.
- 종사상 지위가 열악할 수록 남-녀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노동시장 분석논문에서 밝혀진 바로, 새로운 발견은 아님.
- 6세 이하 아동의 수를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는데, 변수 값 분포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판단되는 “학생”집단을 분석에 포함시킨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이 빈곤’한 것으로 분류됨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 여부에 빈곤가구 가구원의 성비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 이로 인한 해석상의 난점은 없을지?
- 전체적으로 자료와 변수 조작화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제시하고, 8년간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추가하고, 해석을 정치(精緻)하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